

길을 묻는 이에게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으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
 nmaum

공부하여 기쁨 맛보면 삶은 고통 아니다

'어려울때 본래모습 찾으라' 뜻

문 삼보에 귀의하고 큰스님께 인사를 통신으로 올려 부끄럽기 그지 없으며,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현대그림사의 제회회사에 근무하는 중견간부로서 10여년 넘게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인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못 따라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서울 봉은사, 구룡사를 자주 다니면서 심신을 닦으면서 가르침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신행자입니다. 집은 안양 평촌에 이사 온지가 약 8년이 넘고 한마음선원에는 자주 지나다니지만 사실은 10여년 이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의 처와 함께 자주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마음 요전> 또는 법문하실 때 어려울때 본래의 모습을 찾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큰스님을 직접 한번 뵙고싶어 나름대로 합작하였지만 번번히 스크린을 통하여 뵙지 싶지만 뵙히고... 실례가 안되던 직접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조퇴하고 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향은 중생의 무례한 경입니다. 안되면 독일가실 때 공학에 가서 법을 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육체 건강하십시오 해의 잘 다녀오십시오.

옛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없으면 공부하려는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부딪쳐 오는 경계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바라지만 그런 고됨이 없다면 어떤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오히려 생각으로 더 고통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생각입니다.

개구리가 개울을 건너는데 폭이 좁은 개울이라면 멀리 뛸 필요가 없지만, 폭이 넓은 개울이라면 최선을 다해 경중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부하부가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이 그 날이 그날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고 발전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고 또 모든 경계를 공부의 재료로 볼 수 있는냐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만

들어지는 겁니다. 열 개를 가졌어도 열 한개를 원한다면 불행한거고, 하나를 가졌어도 그 하나에 감사한다면 백개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바로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달린거죠. 오히려 어려울 때 믿음이 생기고 불행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에 의해서 공부도

열개를 가졌어도

열한개를 원한다면

불행한 거고

하나를 가졌어도

만족한다면

백개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겁니다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한 생각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겁니다.

꿈에 물려고 덩비던 돼지가...

문 어제는 꿈을 꾸었는데 몸집이 큰 돼지 한 마리와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돼지를 건드리자 화가 난 돼지가 물어 죽이려는 듯 덩벼들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의 주둥이는 특이하게 X자 모양으로 뿔이 나 있었는데 저와 아들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주위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돼지의 주둥이에 찔러보았지만 여지없이 막대기는 잘려 나가기를 두 차례 했고, 돼지 주인에게 큰소리로 달려들라고 했으나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아들은 뛰어 나갔고 저만 막 돼지 입에 물리자 직전 '임마! 너와 나는 둘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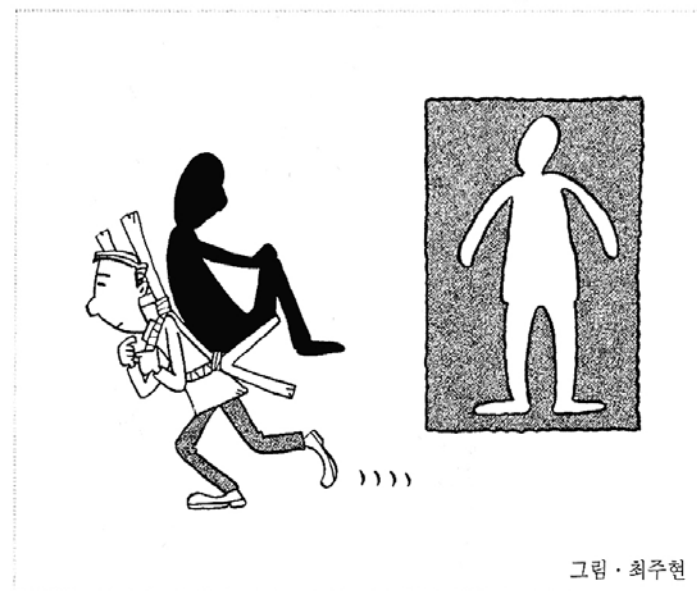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생활속에 다가오는 모든 경계 공부재료 꿈과 생시 돌아다니니 나쁜꿈도 돌려놓길

니아!'라고 말하자, 물러고 덩벼들던 돼지주둥이에 어떤 글씨가 보인다고 싶더니 돼지는 사라지고 꿈을 깨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꿈과 큰스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꿈속에 나타났던 돼지, 저, 아들, 막대기 등 일체가 내 속에서 나왔기에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자리에서는 꿈을 통하여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요. 또한 그 꿈이나 이렇게 큰스님께 드리는 현실도 똑같이 주인공의 나뭇이 고 둘이 아니기에 이런 꿈과 같은 현실로 이루어 주고 있는 근본자리로 중심이 잡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섰을 때 일체가 평등하게 보인다는 큰스님의 말씀과 같다고 여겨지는데 올바른 생각인지 가르

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큰스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문 그것이 우리가 나기 이전에 모든 고 살던 습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시에도 자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꿈에도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 모습을 지극한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모르지만 본처 자리에서는 그냥 다 알고,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나 꿈에 본 모습이나 여러 개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가 화해서 나타나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생시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하는 거죠. 현실 생활에서도 공부를 하게 하지만 꿈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

람들은 꿈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깡달리는 거예요. 설사 꿈을 나쁘게 꾸었다 해도 좋게 생각하고 돌려놓아야 합니다.

독일법회 잘 회향하시길...

문 큰스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회 청안하신지요? 도반으로 부터 독일에 법문하시러 가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멀고 가깝고 가 없다고 하지만, 그 머나먼 곳까지 가서서 수많은 인연들이 어둠에서 벗어 나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가게 해주심에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목이 매입니다. 스님께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목이 매입니다. 스님께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목이 매입니다. 스님께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목이 매입니다. 스님께 더욱 고개가 숙여지고 목이 매입니다.

문 그래요. 여러분도 잘 지내기 바래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구요. 그리고 늘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죠. 늘 함

께하고 있어요. 그걸 안다면 멀고 가깝고도 없고 오늘 내일도 없는 거죠.

이모님이 무당생활 합니다.

문 저의 이모님께서는 무당(무속인)입니다. 원인을 병에 시달리시다가 내림굿을 하여 무당이 되셨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일년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굿을 하십니다. 저도 굿하는 곳에 많이 참석해 보아서, 이모님께서 힘든 일을 하시고, 이모님의 생활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굿을 하는 게 임시방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굿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도록이면 굿을 하지 않고, 불법에, 주인공자리에 밀고 밀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모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그만두게끔 마음을 내렸죠. 그리고 어떤 집은 생활도 괜찮은데 자식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누적이 돼서 운회가 돼서 다시 돌아서 이 다음에 그 자식들이 애를 낳아도 또 그런 지경이 흐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간 무서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집들은 다 끊으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위사람들도 이 도리를 공부해 나가면서 서서히 녹여 나가면 본인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되는지, 이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쭙니다.

문 그게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타에서 오는 영계성. 또 한가지는 자신에서 생기는 영계성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자체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아무개다' 하고 말이 나와서 자기한테 들리죠. 그렇게 하면 아무개인 줄만 알고 거기에서다 정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노릇을 하는 거는, 그건 공부에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말고 거기 모셔놓은 영령을 주인공자리에다 흡수시키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본인이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에 흡수해서 둘이 아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미친 사람과 성한 사람이 둘이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네 하구서 관하는 데다가 흡수한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알고 나면 영가도 그렇게 살 리가 없죠.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은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왔어요. 먹고살아야 하니까. 자식들을 키워야 하니까. 그러나 그 자식들이 커서, 시집보내고 장가들고 그걸 따라 가면 문제가 될까봐 그 후에는 스스로 그만두게끔 마음을 내렸죠. 그리고 어떤 집은 생활도 괜찮은데 자식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누적이 돼서 운회가 돼서 다시 돌아서 이 다음에 그 자식들이 애를 낳아도 또 그런 지경이 흐르게 된다 말입니다.

삶은 고통인데 살아야 하는 이유

문 불경에 삶은 고타고 하는데 그래도 인간은 살아야 할 의미가 있을까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허공에 코드 꽂고 불 들어오길 기다리라.

해 달라고 하면 벌써 둘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빌어 볼들 공덕이 없다. 수단 낱을 내고 불을 켜도 만약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하나도 없고 불을 켜 일도 없다.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을 내가 지어 먹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옷이 날개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방책이라도 나 아닌 곳에서 갖는 것은 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자신 속에서 병원을, 의사를,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밖으로 돌면 무

한한 내면의 해결책을 끌어 내지 못한다. 극락이란 힘겹게 찾아가는 곳이 아니다. 극락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구, 친척이 후시 도와주지 않음에 기대하고 돈·권력·명예·학벌·젊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고 가령 의사나 약사처럼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기도 할 것이나 모름지기 밖의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불 한바가지를 줬으면 그 물을 먹는 동안에 또 물을 퍼야 할 텐데 남이 준 것만 먹으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내 길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때 먹을 수 있으면 항상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할 배고프다고 애원하며 남의 집 며느 노릇만 할 것인가.

관세음 보살! 하고 부르면 벌써 밖으로 모시는 마음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공! 하고 안으로 들어대라 하는 것이다. "주인공 이시여! 여여하고 원만해서 삼천大千 세계를 두루 다 비출 수 있고 여여하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으로 하라.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타력 신앙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광대 무변한 인간의 가능성을, 법신으로서의 부처 이룰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더할 수 없는 고통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저 높은 하늘'이란 어디쯤인가. 복극성이나 삼태성에 사는 생명체들이 보기에는 지구 쪽이 '저 높은 하늘'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서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말이다.

우주 삼천大千 세계가 내 자리 아닌 곳이 없으니 법당에 있으나 번소에 앉아 있으나 내가 그 곳에 있기에 참 내가 같이 있고 부처님도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주인공 자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돌면서 '더 좋은 기도처가 없다. 더 좋은 스님은 안개신사'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법당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법당 안에 항상 불이 켜 있고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다.

허공에 코드를 꽂아 놓고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려느냐?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고 하지 않는가. 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모른다 하니까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 불은 불부터 꺼야 부모의 목은 빛도 밝고 부려놓는 자식들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리를 공부할 생각을 않고 기복으로 돌아 귀신 놀음이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 자신만 귀신이 되고 말면 좋겠는데 자식들까지 귀신 노릇을 하게 하니 딱한 일이다. 이곳 저곳 장소 따지고 이종교 저종교 이름 가리고 한다면 전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어떻게 감득할 수 있겠는가. 이 신 저 신 찾다가는 이 신, 저 신, 내 신까지 잃어버린다.

종교란 이름이다.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지역 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니 종교를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 인간들이 제각각 마음먹기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일 뿐 하나님이 싸우라고 시킨 것도, 예수가 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부처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알라신이 그렇게 시켰을 리도 없다. 인간들이 그렇게 해 놓고 공언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뿐이다.

협찬: 주인공